

# 공수처법 통과 후폭풍... 얼어붙은 새해 정국

민주당, 개혁동력 확보 겸 개혁 고삐  
한국당, 고강도 장외투쟁 전면전  
6일째 검경수사권 조정 등 처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법안에 대한 여야 '4+1' (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한신당) 협의체의 국회 본회의 강행 처리에 따라 새해 정국에는 매서운 한파가 몰아치고 있다.

공수처 법안 처리로 개혁 동력을 확보한 민주당은 검찰개혁의 고삐를 한껏 조인 반면, 한국당은 '의원직 총사퇴' 카드를 꺼내든 데 이어 고강도 장외투쟁 등 본격적인 대야 전면전을 예고했다. 이에 따라 유치원 3법, 데이터 3법 처리 등 내년에도 여의도에서는 주요 민생 이슈가 실종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마저 나온다.

민주당은 공수처법 통과로 검찰개혁의 물꼬를 텃다고 평가하며 남은 개혁 입법의 완수 방침을 재확인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지난달 31일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견제받지 않는 권력기관을 해체하기 시작한 데 가장 큰 의미를 부여한다"며 "검찰개혁의 산봉우리가 아직 더 남아있다"고 밝힌 검경수사권 조정법안 처리 등 검찰개혁의 고삐를 늦추지 않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했다.

민주당은 연말연시를 피해 내달 6일째 본회의를 열어 또 다른 패스트트랙 법안인 형사소송법·검찰청법 개정안, 즉 검경수사권 조정법안 처리 수순을 밝을 계획이다. 특히 민주당은 검경수사권 조정법안 처리까지 '4+1' 공조 체제를 유지하는 한편, 한

국당 역시 검경수사권 조정에는 반대하지 않는 만큼 한국당과의 대화 복원에도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또 개혁 입법을 마무리 짓는 대로 시급한 민생법안 처리에도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다. 이를 반영하듯,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이날 "한국당이 할 일은 의원직 사퇴 결의가 아니라 민생법안 처리에 나서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패스트트랙 정국을 '빈손'으로 마무리한 자유한국당은 자성과 함께 장외집회를 통한 대야 투쟁을 강화하면서 보수 통합을 추진하는 '투트랙' 전략으로 반전을 도모할 방침이다. 한국당은 전날 공수처 법안 통과 직후 의원총회에서 밝힌 의원직 총사퇴 방침을 거듭 강조하며 여권을 압박했다. 심재철 원내대표는 지난달 31일 열린 원내대책회

의에서 "만행에 끓어오르는 분노, 폭거를 막지 못했다는 자괴감, 국민의 기대를 충족하지 못했다는 송구함 등이 모든 감정을 모아 의원직 사퇴를 결의했다"며 "이 결기를 가지고 계속 투쟁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당내에서는 천막 합숙, 내년 총선 불출마 결의 등 의견까지 나오며 비장한 분위기가 감지된다. /임동욱 선임기자 tuim@kwangju.co.kr



공수처법 통과 지켜보는 추미애 후보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 12월 30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공수처 설치법안 통과를 지켜보고 있다. /연합뉴스

## 文대통령, 오늘 추미애 법무장관 임명... 새해 檢개혁 '속도전'

문재인 대통령이 2일 추미애 후보자를 법무부 장관에 임명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10월 14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사표가 수리된 지 80일 만에 장관 공백 사태가 해소되는 셈이다. 지난 연말 국회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안이 통과된 데 이어 새 법무부 수장 인사까지 마무리되며 새해 검찰개혁 작업에 더욱 속도가 붙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특히 '윤석열 검찰'이 청와대를 겨냥한 수사를 이어가는 상황에서 이번 추미애 법무부 장관 임명이 어떤 변수로 작용할지에도 관심이 쏠린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31일 국회에 추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청와대로 보내 달라고 재송부 요청을 하면서 그 기한을 1일까지로 정했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이날 밤 12시까지

국회가 청문보고서를 보내지 않을 경우 문 대통령은 절차에 따라 추 후보자를 그대로 임명할 수 있다.

여권 관계자는 1일 "문 대통령이 더 시간을 끌 이유가 없다"며 "내일(2일) 바로 추 후보자를 임명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애초 문 대통령은 법률에 따라 국회에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시간을 줄 수 있었음에도 이번에는 단 이틀만 시간을 줬다"며 "문 대통령이 '속전속결'로 임명 절차를 매듭짓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이라고 부연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이날 중 추 후보자 청문 보고서를 채택할 가능성이 없는 만큼 추 후보자는 문재인 정부 들어 국회의 청문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되는 23번째 장관급 인사가 될 전망이다. /연합뉴스

## 전남도 어촌 정주여건 개선 등 2300억 투입

방파제 등 어항시설 확충·보수 30개소 등 전남도는 2020년을 어촌·어항 부흥의 해로 삼고 수산업 인프라 확충, 어촌 정주 여건 개선, 지역 주민의 소득 증대 등을 위해 2300억원이 넘는 예산을 투입한다.

1일 전남도에 따르면 올해 방파제·물양장 등 어항 시설 확충을 위한 지방어항 건설 및 유지보수 30개소 250억원, 기항지 개선·어촌관광 활성화 등을 위한 어촌뉴딜 63개소 1978억원, 어선의 안전 접안과 육지 인양을 위한 부잔교 및 인양기 설치 144개소 149억원 등 모두 3개 분야에 2377억원의 예산을 배정했다. 2019년 1369억 원보다 1008억원(74%) 증액된 규모다.

지방어항 건설사업의 경우 그동안 계획 수립 후 사업 완료까지 평균 7년 이상이 소요돼 사업 지연에 따른 주민의 피로감이 누적돼왔다. 2020년에는 전

년보다 250% 증액된 202억원을 확보하는 등 모든 사업을 착공 후 4년 이내에 마무리할 계획이다.

전남도는 어촌뉴딜300 공모사업에 2019년 26개소 2312억원, 2020년 44개소 3750억원이 확정돼 2년 연속 전국에서 가장 많은 사업이 선정되는 성과를 거뒀다. '어촌뉴딜300사업'은 어촌지역을 활력이 넘치는 매력적 공간으로 재탄생시키기 위해 전국 300개의 어촌·어항 현대화를 통해 주민 삶의 질을 높이고 해양관광활성화와 어촌의 혁신성장의 견인차 역할을 하기 위해 2019년부터 2023년까지 3조1355억 원을 들여 추진하는 해양수산부 역점사업이다.

이상심 전남도 섬해양정책과장은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 등으로 지역 주민이 사업 성과를 조기에 체감토록 시설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하겠다"며 "2021년 어촌뉴딜300 공모사업 대상지 발굴과 선정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 "진도 윤림산방·해남 설아다원서 전통문화 체험하세요"

### 전남도, 1월 관광지 추천

전남도는 2020년 새해를 맞아 '이리오너라' 업고 놀자!를 주제로, 예향 남도의 대표 관광지인 진도 윤림산방과 해남 설아다원을 1월 관광지로 추천했다.

1일 전남도에 따르면 '예향' 전남은 예로부터 학문과 예술을 꽃피워 남도문화를 이뤘고 그 대표적인 곳이 바로 진도 '윤림산방'이다. 조선 후기 남종화의 대가 소치 허련(1808-1893)이 말년을 보냈다. 침철산 아래 자리잡은 이곳은 그 풍경만으로도 수목화로 그려낸 듯한 멋을 지녔다. 소치 선생은 작은 집 앞에 '윤림지'라는 연못을 파고 한가운데 둥근 섬을 만든 후, 직접 섬에 배롱나무를 심었는데, 그 아래 커다란 바위와 어우러져 고풍스러운 느낌을 자아낸다. 윤림산방 옆 소치기념관에는 소치의 작

품은 물론 그의 스승과 후손의 작품을 전시하고 있다. 이곳에서 꼭 감상해야 할 작품은 소치의 전형적 화풍을 엿볼 수 있는 '선면산수도'와 봄이 오기 전 꽃을 피운 고결함을 나타낸 '매화도'다.

차를 통해 득도의 경지에 올랐다는 초의선사가 머물렀던 해남은 조선시대 말부터 차의 성지였다. 현재는 차 문화의 명맥이 많이 사라진 상태지만 두류산 암봉 반대편 자락에 차밭 '설아다원'이 조용히 그 명맥을 잇고 있다. 부부가 직접 차를 재배하고 가꾸며, 유기재배 인증을 받은 차밭이다. 설아다원은 단순한 차 농원이 아니다. 직접 차잎을 따 뒤어볼 수 있는 차 만들기 체험과 차 명상, 제철음식 체험, 풍물 체험도 할 수 있다. 그 중 백미는 바로 부부의 우리 가락 공연이다. 아내는 진도아리랑, 흥부가 등의 판소리를 구성지게 부르고, 남편은 그에 박자를 맞춘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저희 병원의 엄마사랑 아이사랑 정신은 계속됩니다.

# 생명존중을 실천하는 아름다운 "에덴병원"

지난 한해 보내주신 크나큰 사랑에 감사드리며 아름다운 새해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대표원장 허 정의 임직원일동

**초음파유도하 고강도초음파집속술 도입**

자궁근종센터에서 자궁을 보존하는 자궁근종, 선근증 치료

- 제 1회 임신부의 날 「대통령 표창」 수상
- 한국 여성민우회 「아름다운 병원」 선정
- 전국병원 의료기관 중 부인과 수술비가 가장 낮은 1위 병원

**진료 내용**  
산부인과, 내과, 유방·갑상선 외과, 영상의학과, 소아청소년과 자궁근종센터, 건강검진센터

**에덴병원**  
광주광역시 북구 면양로 170번길 10(두암동)  
대표전화 | (062)260-3000